

國民黨 政府 依然繼續

[東光] 제4권 4호 (총32호 1932년 4월)

1.中國은 이번 滿洲事件과 上海事變으로 因하여 人命과 財政上 其他 여러 가지로 巨大한 損失을 보았지마는 精神上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中國은 國民黨과 廣東派, 共產黨과의 對立, 軍閥間의 軋轢 其他 여러가지로 內爭이 많고 統一上 큰 問題였었는데 이번 事件으로 말미암아 一層 緊張한 自覺을 일으키고 따라서 中國進路에 많은 影響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2.中國은 中國 自身の 힘으로야 그 基礎를 鞏固히 할 수 있겠지요. 政治上으로보면 亦是 親米, 親英의 傾向을 가질 것입니다.

3.國民黨政府가 繼續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면 만일 共產黨이 成立된다면 그것은 資本主義國家 全部의 敵이니까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것이요, 國家主義黨이 갑자기 權力을 쥐게 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亦是 四, 五十年의 歷史를 가진 國民黨政府가 繼續될 것이요, 그것이 國家主義黨의 色彩를 띠게 될지도 모릅니다.

4.中國國民의 態度如何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입니다. 中國國民이 自覺하고 一致團結하여 善處하면 國際管理나 分割이 안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如何한 運命에 이를지 모를 것입니다.

宋鎮禹 談, 文責在記者